

순천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본격화

7월 입국 전년동기비 38% 늘어
26일부터 중국인 무비자 활용
크루즈 관광객 겨냥 셔틀버스 운영
중국어 홍보물 등 맞춤형 대책 추진

순천시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속도를 내며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관광데이터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까지 순천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크게 증가했다. 특히 6월에는 22.2%, 7월에는 38.0% 늘어나며 여름철 외국인 관광 수요가 집중됐다.

시는 오는 26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시행되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을 계기로 관광객 유치 전략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여수항을 통해 입국하는 크루즈 관광객에게는 항구에서 순천까지 직행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중국어 해설사가 동승하는 환영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기념품, 중국어 안내 지도, 관광지 할인권 등이 포함된 웰컴 패키지를 제공해 짧은 일정 속에서도 만족도를 높인다. 개별 관광객에게는 순천역 관광안내소에 중국어 해설사를 배치하고 전용 코스맵을 제공한다. 드라마 촬영지를 활용한 포토존, 중국인 친화 맛집·카페 지도, K



순천 선암사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관광해설을 듣고있다.

-뷰티·한복·로컬공방 체험 등도 준비해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한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체류→소비→재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대응책도 마련했다. ▲중국어 홍보물 제작과 온라인 홍보 강화 ▲음식 체험 프로그램과 음식 인증제 도입 ▲숙박시설 위생관리 및 간편결제 도입 ▲K-뷰티 팸투어와 전통시장 쇼핑 연계 ▲관광지 입장료 할인과 셔틀버스 제공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정원 위계

이션, 예코촌 숙박, 마을스테이 '실랑계', 사운드 순천, 씨워킹 등 체류형 치유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글로벌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늘어나고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나는 통계로 볼 때, 순천이 세계적으로 생태관광도시로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 세계인이 찾고 머무는 치유관광 선도 도시로 키워 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영암군 월출산 깃대종 남생이 보호 한국남생이보호협회와 업무협약

영암군이 (사)한국남생이보호협회와 월출산국립공원 깃대종인 남생이 보존·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대표 동식물을 뜻하는 깃대종 남생이를 보존·보호를 위한 노력으로 월출산국립공원 생태계의 건강성과 생명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물거북 '남생이'는 조선 시대에는 국권을 상징하는 어보(御寶)에 새겨졌을 만큼 역사적으로 상징성이 큰 동물이다.

과거에는 우리 주변에서 남생이 여러 마리가 강가를 따라 줄지어 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으나 지금은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종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자 천연기념물 제453호로 지정돼 있다. 주로 하천, 저수지, 습지 등에서 서식하며 깨끗한 수질, 풍부한 수생 식물 등 환경을 선호한다. 최근에는 서식지 파괴, 수질 오염, 외래종 유입 등으로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어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양 기관은 협약식에서 남생이 안정적 서식 환경 조성, 생태계 보호를 위해 협력하고 다양한 홍보와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남생이를 알리기로 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지속가능한 달빛생태도시 영암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민·관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



‘상생 화합’ 완도서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행사

500여명 가요제 등 한마당 잔치

완도군이 최근 해변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외국인 근로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완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지역사회와 화합을 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완도군에는 11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며 농수특산물 생산현장 등에서 일하고 있다.

'구석구석 문화 배달사업'을 추진하는 라도피플과 완도군이 공동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놀거리와 볼거리, 먹거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

다. <사진> 지역사회와 외국인 근로자 간 상생 메시지를 담은 드로잉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마술 공연, 근로자 가요제, 댄스 경연, EDM 파티까지 국적과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대동의 한마당을 마련했다.

가요제에 참여한 라오스 출신 루리씨는 "한마음 행사가 재밌었고 가족과 함께 지내며 일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은 완도군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지역산업을 이끌어 가는 든든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완도에서의 삶이 더욱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입안 가득 달달! 신나는 무화과 파티

영암군 5~7일 무화과축제

영암 대표 특산물인 무화과를 맛보고 즐기는 축제가 열린다.

영암군 삼호읍문예체육행사추진위원회는 5~7일 전남농업박물관 일대에서 '영암무화과축제'와 '제26회 삼호읍민의 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입안 가득 달달! 신나는 무화과 파티'를 주제로 대표 특산물인 무화과를 맛보고 즐기는 농업·문화·관광 복합 지역축제로 펼쳐진다.

대형 무화과 모형 포토존, 천 장식으로 꾸민 무화과 거리, 곳곳에 비치된 관상용 무화과 화

분들이 무화과의 세계로 초대한다.

무화과 직거래 장터에서는 신선한 영암 무화과와 특산물 등을 만나볼 수 있다.

개막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무화과 그림 그리기 대회, 무화과 가요제 등 즐길 거리와 어린이 풀장, 비눗방울놀이, 페이스페인팅, 추억의 오락기 체험 등도 펼쳐진다.

청년푸드트럭, 우주제빵소 무화과 머핀 등 먹거리와 영암굿즈 상품 판매장, 월출산국립공원 홍보 부스 등도 만나볼 수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지역 대표 특산물을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영암무화과축제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지난 28일 김산(왼쪽 세번째) 무안군수 등이 전남서남부채소농협에 구축한 농산물 자동선별시스템·자동패킷타이징 시스템, 무인지게차, 관제실 등 설비 전 과정을 시연·점검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 농산물 산지유통 실증센터 구축 박차

입고부터 출고까지 전 과정 자동화

무안군이 전남서남부채소농협에 구축한 농산물 산지유통 실증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다.

2022년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207억원을 확보한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구축된 실증센터는 앞으로 2026년까지 첨단로봇을 활용한 물류·유통 자동화 기술의 현장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사업화 추진을 진행한다.

무안군은 지난 28일 김산 군수를 비롯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남서남부채소농협,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물 자동선별시스템·자동패킷타이징 시스템, 무인지게차, 관제실 등 설비 전 과정을 시연·점검하고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 대상 농산물은 양파, 고구마, 단호박 등 3개 품목이며 국내 스마트 APC 표준모델로 구축된 APC 신규사업과 연계해 농가별 재배 데이터와 수급 정보의 통합 관리로 정교한 생산계획과 물류계획 또한 제시할 계획이다.

농산물 산지유통 실증센터는 올해 9월 말 개소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현장 실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여수시, 산업위기 기업 운영자금 이자 지원

5억원 신규 대출 연 3.0% 보전

여수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지역산업위기 대응 이자보전(이자보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석유화학산업 불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추경을 통해 확보한 국비 3억 8천만 원을 재원으로 한다.

특히 지역 기업들이 꾸준히 요청해 온 경영안정

자금 대출이자 보전 권의를 수렴해 마련한 지원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원 대상은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C201),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C202) 등 석유화학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다. 신청은 8월 28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누리집(www.k-pass.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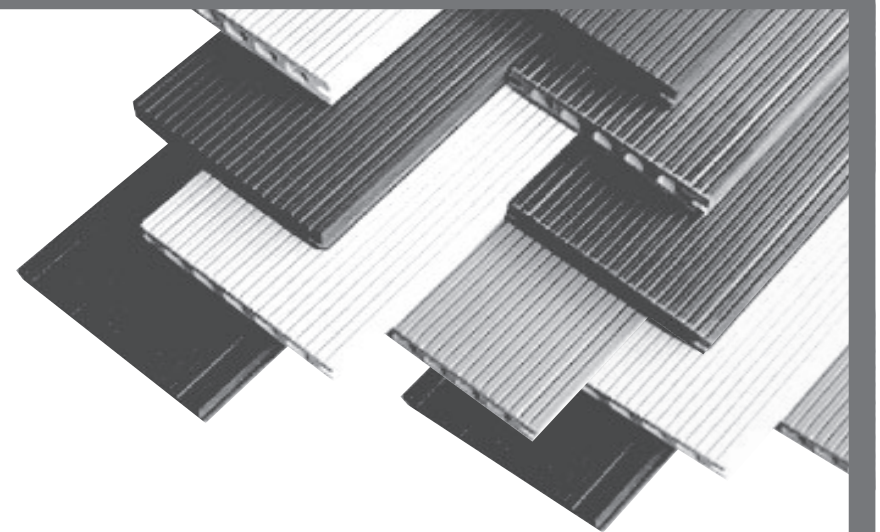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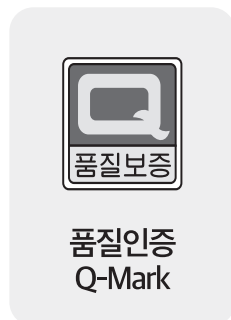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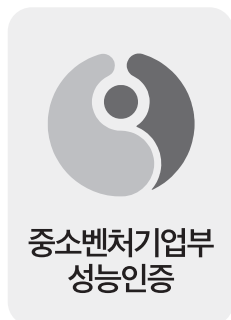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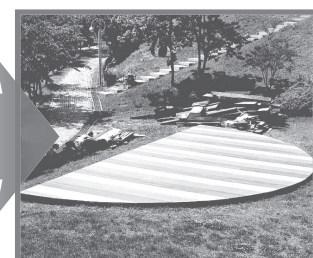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